

제228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 3 차 본 회 의  
2019. 1. 31(목) 11:00

# 해외연수 결과보고서



구미시의회

---

## 구미시의회 해외연수 결과보고서

---

- 연수기간 : '18. 11. 18(일) ~ 11. 22(목)
- 연수국가 : 일본 (동경, 오사카 등)
- 참가인원 : 22명 (의원 13, 직원 9)
- 내 용 : 일본 선진 시책 우수사례 비교를  
통한 시정 대안 제시 및 반영



구 미 시 의 회

# 목 차

|                           |    |
|---------------------------|----|
| 1. 연수 개요 .....            | 1  |
| ○ 주요 일정 .....             | 2  |
| 2. 연수단 구성 .....           | 3  |
| 3. 연수국가 정보 .....          | 4  |
| 4. 기관 방문 결과 보고            |    |
| 1) 동경소방청 본소 방재관 .....     | 7  |
| 2) 동경도 타마 뉴타운 사업실 .....   | 9  |
| 3) 효고현 농정환경부 종합농정과 .....  | 12 |
| 4) 오사카부 사회복지협의회 .....     | 17 |
| 5) 오사카부립 대형 아동관 .....     | 21 |
| 6) 스기코 헤이 농원 .....        | 24 |
| 5. 의정 자료 활용 및 정책 제언 ..... | 28 |
| 6. 개별 보고서 .....           | 34 |

# 2018 일본 공무 국외연수 결과보고서

## 1 연수 개요

### ☐ 연수목적

- 일본의 재난방재, 도시재생, 선진농업, 복지 분야의 우수사례를 비교검토해서 구미 현안에 대한 정책 수립에 반영코자 함.

### ☐ 연수국가 : 일본 (동경/요코하마/교토/오사카)

### ☐ 연수기간 : '18. 11. 18(일) ~ 11. 22(목) [ 4박 5일 ]

### ☐ 연수인원 : 총 22명 (의원 13명 / 직원 9명)

### ☐ 주요 방문지

| 구분   | 방문지                                                                                                                                                                                                                |
|------|--------------------------------------------------------------------------------------------------------------------------------------------------------------------------------------------------------------------|
| 기관방문 |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재난방재)동경 소방청 안전방재관</li><li>▷ (도시재생)동경도 도시정비국 다마시 뉴타운사무실</li><li>▷ (선진농업)효고현 농정환경부 농정기획국 종합농정과</li><li>▷ (사회복지)오사카부 사회복지협의회, 오사카부립 대형 아동관</li><li>▷ (6차산업)스기고헤이농원</li></ul> |
| 시찰현장 |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최첨단 복합문화공간 동경 미드타운 시찰</li><li>▷ 요코하마 미나토미라이21지구, 야마시타 공원 시찰</li><li>▷ 동경 임해부도심 오다이바 시찰</li><li>▷ 교토 전통경관 보존지구 등 시찰</li></ul>                                               |

□ 주요 일정

| 일자              | 일 정                                                                                                                                                                                         |
|-----------------|---------------------------------------------------------------------------------------------------------------------------------------------------------------------------------------------|
| 11.18(일)<br>1일차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구 국제공항 출발</li> <li>• 동경 나리타 공항 도착</li> <li>• 최첨단 복합문화공간 동경 미드타운 시찰</li> <li>• <u>동경 소방청 안전방재관 방문(방재 체험)</u></li> <li>• 동경 신도청 전망대 등 시찰</li> </ul> |
| 11.19(월)<br>2일차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u>동경도 도시정비국 다마시 뉴타운 사업실 방문</u></li> <li>• 요코하마 미나토미라이21지구, 야마시타 공원 시찰</li> <li>• 동경 임해부도심 오다이바 시찰(쓰레기 매립지 도시재생)</li> </ul>                        |
| 11.20(화)<br>3일차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간센 이동(→교토)</li> <li>• 교토 전통경관 보존지구 시찰 (청수사 등)</li> <li>• 교토 아라시야마 대나무숲 시찰</li> </ul>                                                              |
| 11.21(수)<br>4일차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u>효고현 농정환경부 농정기획국 종합농정과 방문</u></li> <li>• <u>오사카부 사회복지협의회 방문</u></li> <li>• <u>오사카부립 대형 아동관 방문</u></li> </ul>                                     |
| 11.22(목)<br>5일차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u>스기고헤이 농원 방문</u></li> <li>• 오사카 국제공항 출발</li> <li>• 대구 국제공항 도착</li> </ul>                                                                         |

## 2

## 연수단 구성

□ 연수단 인원 : 총 22명

○ 의원 : 13명

| 연번 | 직책                     | 성명    | 임무내용                                        |
|----|------------------------|-------|---------------------------------------------|
| 1  | 부 의 장                  | 김 재 상 | 연수단장                                        |
| 2  | 기획행정위원장                | 김 춘 남 | 사회복지,<br>방재 정책 분야<br>사례 조사 및 비교 분석          |
| 3  | 기획행정부위원장               | 김 낙 관 |                                             |
| 4  | 의 원(기획위)<br>(의회운영위원장)  | 강 승 수 |                                             |
| 5  | 의 원(기획위)<br>(의회운영부위원장) | 장 미 경 |                                             |
| 6  | 의 원(기획위)               | 이 지 연 |                                             |
| 7  | 〃                      | 이 선 우 |                                             |
| 8  | 산업건설위원장                | 양 진 오 | 도시재생,<br>농업(6차산업)<br>정책 분야<br>사례 조사 및 비교 분석 |
| 9  | 의 원(산업위)               | 안 장 환 |                                             |
| 10 | 〃                      | 박 교 상 |                                             |
| 11 | 〃                      | 장 세 구 |                                             |
| 12 | 〃                      | 신 문 식 |                                             |
| 13 | 〃                      | 윤 중 호 |                                             |

○ 의회사무국 직원 : 9명

| 연번 | 직 급  | 성명  | 임무내용         |
|----|------|-----|--------------|
| 1  | 행정5급 | 조장근 | 방문기관 자료 수집 등 |
| 2  | 행정5급 | 구춘서 | 방문기관 자료 수집 등 |
| 3  | 행정6급 | 김차병 | 방문기관 자료 수집 등 |
| 4  | 행정6급 | 장미영 | 방문기관 자료 수집 등 |
| 5  | 행정7급 | 조희태 | 방문기관 자료 수집 등 |
| 6  | 행정7급 | 김문교 | 방문기관 자료 수집 등 |
| 7  | 행정7급 | 강명지 | 방문기관 자료 수집 등 |
| 8  | 행정7급 | 홍상윤 | 방문기관 자료 수집 등 |
| 9  | 사무7급 | 문수진 | 방문기관 자료 수집 등 |

□ 연수 경비

| 구분       | 인원  | 여행경비(천원) |
|----------|-----|----------|
| 계        | 22명 | 46,597천원 |
| 구미시의회 의원 | 13명 | 27,596천원 |
| 의회사무국 직원 | 9명  | 19,001천원 |

## □ 일본 약황

### ○ 일반사항

- 국명 : 日本國(JAPAN)
- 위치 : 동북아시아
- 면적 : 약 38만km<sup>2</sup>(한반도의 약 1.7배)
- 인구 : 1억 2,699만명(2016, World Bank)
- 수도 : 東京(Tokyo)
- 행정구역 : 1都 1道 2府 43縣(총 47개)
- 종교 : 신도(Shintoism), 불교, 기독교 등

### ○ 정치현황

- 국가형태 : 입헌군주제
- 정부형태 : 내각책임제
- 국가원수 : 아키히토 천황
- 총리대신 : 아베 신조 자민당 총재
- 의회구성 : 양원제(참의원 / 중의원)
- 주요 정당 : 연립여당(자민당 + 공명당)
  - 야당 : 입헌민주당, 국민민주당, 공산당 등
- 최근 정국동향
  - 2014.12.24 제3차 아베 내각 출범
  - 2015.10. 7 제3차 아베 개조내각 출범
  - 2016. 8. 3 제3차 아베 2차 개조내각 출범
  - 2017. 8. 3 제3차 아베 3차 개조내각 출범
  - 2017.11. 1 제4차 아베 내각 출범
  - 2018.10. 2 제4차 아베 개조내각 출범

○ 경제현황(2017년)

- 화폐단위 : 엔(円·yen)
- GDP : 4조 8,721억불(WorldBank기준)
  - 1인당 GDP : 3만 8,428불(WorldBank기준)
- 외환보유액 : 1조 2,643억불(日 재무성)
- 경제성장률 : 1.6%(한국은행)
- 실업률 : 2.8%(日 총무성)
- 물가상승률 : 0.5%(日 총무성)
- 총교역량 : 1조 3682억불(JTRO)
  - 수출 : 6,972억불, 수입 : 6,710억불

○ 우리와의 관계(1965년 수교)

- (2017년 교역) 對日수출액 268.2억불  
對日수입액 551.3억불
  - 일본은 우리의 제3위 교역국 / 우리는 일본의 제3위 교역국
- (2017년 투자) 對日 투자액 8.0억불  
對韓 투자액 18.4억불
- (2017년 인적교류) 訪韓 일본인 231만명  
訪日 한국인 714만명
  - 외국인 입국자 중 일본인 비중은 2위 /  
방일 외국인 중 한국인 비중은 2위
- (2017.6월 기준) 재일한국인 : 45만 4천명  
재일조선인 : 3만 2천명

○ 최근 정세

- 극우세력에 의한 험한 시위 (징용 판결, BTS)
- 풍진 환자 지속 증가 : 2018년(1.1.-9.16.) 총 642명 발생,  
지역별로는 도쿄 196명, 지바현 161명, 가나가와현 68명으로 높음

## 1. 동경소방청 본소 방재관

### □ 현 황

- 모의 화재를 체험하고 배우고, 비상상황시 방재 행동력을 몸에 익힐 수 있는 센터이며 동경내 가장 큰 규모로 연간 10만명 가량 방문.
- 방재관의 센터장은 소방청에서 발령한 직원이며, 그 이외 운영권은 위탁.  
(연간 운영비는 약 4천5백만엔(한화 4억 5천만원)이며 소방청에서 지급)
- (사)소방방재협회에 수의계약방식으로 위탁 운영하는데, 협회는 소방청 출신의 OB로 구성. 매뉴얼도 협회에서 개발하되 소방청의 검토 받음.
- 주소 : 東京都墨田區横川4-6-6
- 전화 : 03-3621-0119 / 팩스 : 03-3621-0116
- 시설 안내
  - 1층 : 지진체험 코너, 도시형 수해 체험 코너(국지성 호우 등)
  - 2층 : 연기체험 코너, 소방체험 코너, 응급처치체험 코너
  - 3층 : 폭풍우체험 코너
  - 4층 : 방재극장 (테마 : 지진)
- 동경도내 방재관 직원 및 방문자수

| 구분       | 직원수(방재관련인력) | 금년 방문자 수 |
|----------|-------------|----------|
| 본소 안전방재관 | 24명         | 110,000명 |
| 다찌가와방재관  | 21명         | 90,000명  |
| 이케부쿠로방재관 | 14명         | 72,000명  |

## □ 시사점

- 방재관 방문자의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방재 프로그램(지진과 화재 체험 등)을 운영하여 재미와 학습 효과를 높였음.
- 재난 대비 경험이 풍부한 소방청의 OB공무원들을 활용하여 방재에 대한 노하우를 알리는 교육도 인상 깊었음.
- 구미시의 경우 지난 2017년에 제정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있지만, 민간건축물 지진안전성 표시제 운영에 관한 조례를 차후에 제정하여 구미시가 방재 선진 도시로 나아갈 수 있도록 선제적인 조치가 필요함.
- 시민들 특히 학생들에 대해 재해 체험과 교육을 실시 할 수 있는 재난 올인원(all-in-one) 센터 건립해서 재난대응 의식을 향상시키는 노력이 필요.

## □ 방문 사진



<도쿄 소방청 안전방재관 방문>

## 2. 동경도 도시정비국 시가지정비부 타마 뉴타운 사업실

### □ 타마 뉴타운 사업실

- 동경도 도시정비국의 조직에 속해있는 기관으로 도유지(都有地)  
(타마 뉴타운 지역, 사카하마 히라오 지구, 아키루다이 지구) 유지 관리
- 도영단지 재건축 지원과 타마 뉴타운 지역 회생 지원 등을 추진.

### □ 타마 뉴타운의 개요

- 동경도의 이나기시, 타마시, 하치오지시, 마치다시 등 4개의 시에 걸쳐있으며 면적 약 2,884 헥타르임.
- 기본 방침으로는 뛰어난 자연 환경과 조화를 이룬 좋은 주거 환경을 갖춘 주거 기능의 충실과 교육, 문화, 업무, 상업 기능을 갖춘 활력있는 신시가지의 형성을 도모
- 또한 타마지역의 자립화를 추진하는 거점 도시로서 광역적인 도시 기능을 충실하고 주변 지역과 연계한 복합 도시 만들기를 목표
- 또한 자연과 지형을 살리면서 자동차 운송 및 입체 분리된 녹색 보행자 전용 도로를 인프라를 정비하고 주변 지역과의 융화를 도모하고, 우수한 주거 환경을 갖춘 매력있는 도시 만들기를 계획

### □ 타마 뉴타운의 역사

- 전후의 고도 경제 성장기 동경구지역에서 심각한 주택난으로 땅값이 크게 상승하고 민간의 비계획적인 개발로 인하여 당시 불법 택지 조성이 56%를 차지하는 상황이었음.
- 그 속에서 이러한 난개발을 방지하고, 주거 환경의 좋은 택지를 대량으로 공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1966년 1월 지역 주민으로부터 기존 취락 지역 제외 요청을 받고, 토지 구획 정리 사업과 함께 타마 뉴타운이 계획되었음.

## □ 타마 뉴타운의 현재

- 현재 타마뉴타운의 인구는 22만명이며 전체 인구의 16 %를 고령자가 차지하는 상황에서 고령화가 진행 중이며 향후 인구 30만명을 목표로 본 사업이 추진중 임.
- 특히 주택난 해소를 목적으로 오일 쇼크 이전에 건설된 단지는 획일적이고 연립 주택 면적이 좁기 때문에 다양한 세대를 받아들일 수 없고, 임대료도 저렴해서 필연적으로 고령화가 될 수밖에 없음.
- 동경도 내에서 가장 클래스 수가 많은 초등학교는 타마 뉴타운에 있지만 저출산으로 이후 초등학교 중학교 재정비 문제가 발생. 이에 오래된 건축물의 새로운 가치의 재생이 필요한 시점.

## □ 타마 뉴타운의 유지 관리

- 타마뉴타운 지역에서는 지금까지 신주택 시가지 개발 사업과 아이하라·코야마 토지 구획 정리 사업에 의해 조성한 택지 462 ha를 매매하여 미처분 택지는 18.5 ha임.
- 택지판매 공모시 측량 및 조성공사 등을 필요에 따라 실시하는 등 택지매매를 지원.

## □ 도영단지 재건축 지원

- 노후한 도영단지를 교체하는 것은 수도권 동경도 주택정책의 핵심.
- 주택의 방재성의 향상, 불연화, 토지의 유효 이용, 주거 환경의 정비 및 지역 활성화 측면에서 중요해서 계획적으로 재건축을 실시중.

## □ 타마뉴타운 지역 재건 지원

- 타마 뉴 타운은 입주 개시로부터 40년 이상이 경과해, 입소자 고령화나 시설의 노후화 등의 과제가 표면화
- 동경도는 이러한 과제를 근거로 재생을 실시하기 위한 안내로서 2012년에 "타마 뉴 타운 등 대규모 주택 단지 재생 가이드 라인"을 수립했고 타마시가 도의 기술 지원 아래 "타마시 뉴 타운 재생 방침"을 2016년 3월에 공표.
- 동경도는 광역적인 타마 뉴타운 지역의 재생을 검토하기 위해 2016년 7월에 '다마 뉴타운 지역재생 검토위원회'를 설치하고 있으며, '다마 뉴타운 지역 재건 가이드 라인'을 만들었음.

## □ 시사점

- 사업 초기부터 주민 참여를 통해 주민이 주체가 되는 상향식 도시재생 사업이 추진돼야 됨.
- 다만, 사업 추진시 토지 보상에 대한 이해관계 상충시 민원 해결 방안에 대한 질의응답 과정에서 문화적인 차이로 개인이기주의가 설명이 안되는 측면도 있었음.
- 지역 문화재 등을 스토리텔링해서 관광자원으로 개발하여 관광코스로 만들어서 관광객 유입을 통한 상권 살리기 등 문화재생 정책도 필요
- 또한 도시재생 사업 추진시 젠트리피케이션 현상(낙후된 구도심이 활성화 돼서 중산층 이상의 계층이 유입됨에 따라 기존 저소득층 원주민을 대체)에 충분한 지자체 사례조사를 해서 기존 원주민에 대한 보호 방안이 우선 마련돼야 할 것임.

## □ 방문 사진



< 도쿄 타마시 뉴타운 도시재생과 방문 >

### 3. 효고현 농정환경부 농정기획국 종합농정과

#### □ 주요 업무

##### ○ 농림수산업의 6차 산업화(생산×가공×유통·판매)의 추진

- 생산으로부터 가공, 유통까지를 일체적으로 파악해 지역 특성을 살린 농림수산업의 6차 산업화를 진행시키기 위해, "효고 6차 산업화 서포트 센터" 설치하여 진행.

##### (1) 6차산업화·지산지소법에 의거한 종합적 지원

- 효고 6차 산업화 지원센터에서는 각 분야의 전문가인 '6차 산업화 플래너'를 파견하여 지원.

\* '지산지소'는 일본의 로컬푸드를 칭함.

##### (2) 6차 산업화·새로운 활동을 향한 지원

- 농림 어업자등의 6차 산업화나, 타업종간의 제휴에 의한 새로운 비즈니스 활동의 전개등에 대해서, 국고 교부금을 활용해 신상품 개발이나 판로 개척, 가공 시설·기기의 정비등을 지원

##### (3) 효고 6차 산업화 지원 센터에서의 사무 흐름

- 구상검토→사업내용, 판매, 자금계획 등 구체화  
→ 인정신청서 작성→ 국가인정 → 계획 실행

#### □ 효고현 도시 농업 진흥 기본 계획

도시 농업에 대한 주민 평가의 성장과 개발 압력의 저하, 「도시 농업 진흥 기본법」의 제정 등의 정세 변화에 대응 한 새로운 도시 농업 진흥의 기본 방침을 책정하기 위해 2016년 4월 "효고현 도시 농업 진흥 기본 계획 검토회"를 설치하여 2016년 11월 기본계획을 수립.

## 1. 기본 계획에서 도시 농업의 정의

○ 도시 및 그 주변 지역에서 이루어지는 농업

## 2. 계획 기간 : 2016년 ~ 2025년 (10년간)

## 3. 기대효과 : 지역 주민과 공생하는 도시 농업의 진흥

## 4. 기본 방향

가. 산업으로서 지속적인 발전 (영농 의욕이 높은 생산자를 대상)

- 예 : 수익성 농업의 추진, 농산물 지역 소비의 추진 등

나. 지속적인 영농에 의한 농지의 활용 (자급 적 농가 등을 대상)

- 예 : 樂農 생활의 추진, 방재 기능의 발휘 촉진 등

다. 「농업」이 있는 생활 만들기 (지역 주민을 대상)

- 예 : 지역 농업에 대한 이해의 촉진, 「농업」을 통한 지역 공동체 형성 등

## 5. 도시 농업 진흥에 관한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국가에 대한 제언 등)

① 생산 녹지 제도의 재검토

② 상속세 납세 유예 제도의 재검토 (대차에 의한 영농 계속 용인, 농업용 시설 용지에 대한 대상 확대)

③ 재산세 등의 부담 경감 등

## □ 주요 질의답변 내용

○ (질의) 효고현에서 생산되는 대표 농산물은?

○ (답변) 술 만드는 쌀(야마다니시키 품종)이 일본 내에서 1등임.

○ (질의) 친환경에 대한 국가인증제를 받기 어려운지?

○ (답변) 인증을 받는데 비용은 발생하지 않으나, 친환경을 위한

계획이 철저해야 인증을 받을 수 있으며, 인증 받는데 6개월 정도 소요됨.(생산, 판매, 수익, 자금운용, 인력운용계획 등 세부적인 근거를 포함하여 굉장히 디테일한 계획이 세워져야 함), 또한 효고현에서는 전문가를 파견해서 인증 받는데 도움을 주고 검증 작업도 이루어짐.

- (질의) 보조금 지급 이후 관리시스템은 어떻게 되는지?
- (답변) 여기서도 보조금 관리는 어려운 문제이고 과제라고 생각함. 또한 국가에서도 회계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보조금 부정사용이 되지 않도록 행정적 지원과 동시에 점검도 하고 있음. 보조금 부정 집행 사례를 보면 보조금은 받고 사업을 안 하는 경우, 계획과 다르게 보조금을 집행하는 경우가 있음.
- (질의) 보조사업에 대한 관리기간은?
- (답변) 인증기간 5년간은 지속적으로 점검, 인증이 끝나도 정기적으로 체크하고 있음.
- (질의) 보조사업에 대한 보조비율은 어느 정도로 하고 있는지?
- (답변) 사업비의 30%를 보조금으로 지원하며 자부담은 70% 정도 임.
- (질의) 전체 농가중 6차산업에 참여하고 있는 비율은 어느 정도인지?
- (답변) 6차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주로 은퇴 후 60세가 넘는 분들이 많으며 최근에는 30대 젊은층도 참여하고 있는 추세임. 효고현의 경우 농가 8만세대 중 국가인증 받은 곳은 110세대 정도임.
- (질의) 6차산업을 운영하기 위한 자원 중 펀드, 조합(단체), 개인농가의 참여 비율은 각각 어떻게 되는지?
- (답변) 다양한 경로(방법)으로 운영 중임.
- (질의) 마을단위 사업이 있는지?

- (답변) 조합단위(취락, 작은마을)로 일부 운영 중임.
- (질의) 개인, 마을단위 가내수공업에서 사업화하는 과정이 비용이 많이 들고 까다로워서 포기하는 경우가 많은데 어떻게 지원하는지?
- (답변) 일본도 까다로운데 시설에 대한 보조금 지원, 농업기술 지원, 경영지도 등으로 지속적인 서포트를 하고 있음.
- (질의) 농작물 풍년과 흉년에 따라 생산량이 들쭉날쭉한데 농산물 가격조정은 어떻게 하는지?
- (답변) 쌀은 과다 생산되지 않도록 조절하는데 야채의 경우는 없음. 예전에는 있었는데 지금은 없어졌고 어느정도 자율적으로 조정되고 있음. 다만, 국가에서는 야채값 폭락에 따른 차액을 보전해주는 제도가 있음. 참고로 내년부터는 농산물 가격폭락에 대한 보험제도가 실시됨.
- (질의) 농업에 대한 국가지원정책이 있는지? 농업을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 (답변) 기본정책은 국가에서 하는데, 재해보전보호시스템, 작은 농가 고령화에 따라 젊은이에게 토지를 빌려주는 제도가 있으며 수로 등을 만들어 주는 사업을 실시 중에 있음.
- (질의) 작년 기준으로 국가인증제 건수가 효고현에 106개 등록되어 있는데, 관리를 리부서 직원은 얼마나 되는지?
- (답변) 효고현 소재 국가산하기관에 10명 정도 근무함.
- (질의) 농촌이 고령화 상태여서 일손이 부족한데 6차산업을 통해서 어느 정도 농업을 할 수 있는 상황을 유지할 수 있는지?
- (답변) 지속가능한 농업이 되도록 다문화 가정을 통한 노동력 투입과 기계화를 통한 노동력 절감 등 여러 방안을 모색중임.
- (질의) 도내에 효고현 6차산업 서포트하는 조직구성이 어떻게 되는지?
- (답변) 도도부현에 모두 지원하는 조직이 있음. 현마다 하나씩 있으며 효고현은 5명 정도. 동경만 중앙서포트센터가 포괄지원하고 있음.

- (질의) 일반농산물, 인증농산물 가격 차이는? 판로는 더 좋아지는지?
- (답변) 가격은 사업자가 정하며 차이는 별로 없음. 다만 인증 자체가 브랜드가 되기 때문에 판로는 좋아짐.
- (질의) 2017년 매출액이 어느정도 되는지?
- (답변) 6차산업 매출액이 475억엔 정도 됨.

## □ 시사점

- 농업인구의 고령화 및 후계인력 감소에 대한 근본 대책이 필요
  - 농업에 진입하는 경로를 보면 가업을 승계하는 승계농, 타 업종에 종사하다가 농업으로 전환하는 전환농, 도시에 살다가 농촌으로 귀농을 하여 농사에 종사하는 3가지로 분류할수 있음
  - 이 3가지 유형에 대한 사례분석을 통해 각각의 경로에 부합하는 맞춤형 농업인 육성 정책을 추진해야 됨.
  - 또한 드론과 스마트 팜(smart farm) 등 4차산업혁명 기술을 이용한 노동력이 절감되는 고부가가치 농업기반 조성 필요.
- 로컬 푸드 활성화를 위해선 농산물 직매장 확대 및 자국 농산물에 대한 가격 결정시 농가의 자율적 가격 결정이 우선 고려됨.
  - 또한 1인 가구 증가, 고령화, 높은 온습도에 따른 저장 기간 제한 등으로 소포장, 중소과(果) 판매가 증가하고 있음.

## □ 방문 사진



< 효고현 농정환경부 농정기획국 종합농정과 >

---

## 4. 오사카부 사회복지협의회

---

### □ 협의회 현황

- 오사카부 사회 복지 협의회는 전국에 47개 도도 부현 사협의 하나로 오사카부 내 41개의 시읍면 사회 복지 협의회, 민생 위원 어린이 위원, 사회 복지 시설, 사회 복지 관계 단체, 봉사 등 민관 관계자의 참여를 통해 다양한 제반 사업을 전개.

### □ 사업 내용

- ① 복지 활동·사업 등의 기획·실시
- ② 복지 활동으로 주민 참가의 촉진, 봉사 활동의 진흥
- ③ 사회 복지 사업 등의 조직화·연락 조정 및 경영에 관한 지원
- ④ 사회 복지 인재 확보, 연수 사업
- ⑤ 판단 능력이 부족한 사람의 복지 서비스 이용 지원에 관한 사업
- ⑥ 복지 서비스 불편 해결 사업·제3자 평가 사업
- ⑦ 복지 자금 등의 대출 사업
- ⑧ 지역 복지 활동 자원 확보 및 지원

### □ 주요 사업

#### ○ 시민 후견인 양성 및 활동 지원

#### ○ 생활 복지 자금의 대출

- 복지 자금 : 저소득 장애인 또는 고령자 세대에 대해 자금 대출에 필요한 상담 지원함으로써 경제적 자립 및 재택 복지, 사회 참가의 촉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대출 제도 (생업, 기능 습득, 요양 간호 주택 증개축 등)
- 교육 지원 자금 : 저소득 가구를 대상으로 학교 교육법에 규정된 고등학교, 전문대, 대학, 고등 전문 학교 취학 경비 무이자 대출 제도
- 종합 지원 자금 : 실업과 수입 감소에 의해 생계 유지가 어려운 세대에 대해 자금을 대출

- 부동산 담보 형 생활 자금 : 정든 집에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소유한 토지 · 건물을 담보로 생활 자금을 빌려주는 대출 제도
- 긴급 소액 자금 : 긴급적이고 일시적으로 생계 유지가 곤란하게 된 경우에 그 필요한 비용에 대해 10만엔 이내 소액의 대출

○ 복지 서비스에 대한 불만 : 이용자와 사업자의 쌍방에서 논의해도 해결할 수 없는 경우에 대해서는 법률에 따라 오사카 부 사회 복지 협의회에 설치되는 불만 해결 전문 기관인 '복지 서비스 불만 해결위원회'에 불만을 신청.

○ 복지 서비스 제 3자 평가 : 사회 복지 법인 등이 운영하는 사회 복지 시설 일반을 대상으로 한 서비스 평가로 대표적인 대상 시설 유형은

- 노인 복지 분야 (요양원, 양로원, 경비 노인 홈 케어 하우스 등)
- 장애인 복지 분야 (장애인 종합 지원법에 의거 장애인 지원 시설 등)
- 보호 분야 (구호 시설이나 재활 시설 등)
- 아동 복지 분야 (보육원)
- 사회적 양호 시설 분야 (아동 양호 시설, 유아원, 아동 심리 치료 시설 아동 자립 지원 시설, 모자 생활 지원 시설)

\* 사회복지법에 규정, 3년에 1회 결과 공표 의무화

○ 각종 기금 · 기부

- 자원 봉사자 펀드 : 자원 봉사의 보급 목적으로 2001 년에 설립
- 사회 공헌 기금 : 기증받은 쌀·인스턴트 등의 식품 (유통 기한에 여유가 있는 것)이나 상태가 좋고, 아직 사용할 생활 가전 (냉장고·밥솥 등)을 기증

## □ 주요 질의답변 내용

○ (질의) 일본은 선도적으로 미래를 보고 복지제도를 착실히 준비 하였고, 현재는 복지비용이 점차 줄어 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이유는?

- (답변) 일본도 고령화사회가 지속됨에 따라 복지비용이 점차 늘어나는 추세이고 복지비용을 줄이려고 노력하고 있는 실정임.
- (질의) 협회의 운영재원인 사회복지기금은 법제화되어 있는지? 그리고 다른 재정적 지원은 없는지?
- (답변) 법제화되어 있어 정부지원과 상관없이 자립적으로 운영되고 있음. 기본적으로 고령자, 수급자 등 주요 복지정책은 국가에서 수행하고 있으나 우리는 기금을 재원으로 자체사업을 실시하여 복지사각지대의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는 일을 하고 있음.
- (질의) 일본은 복지제도가 잘 되어있음에도 불구하고 시골마을에서는 아직도 노인들이 어렵게 일을 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지?
- (답변) 노인들이 연금이나 복지혜택을 받고 있지만 그것만으로는 생활이 어려운 경우가 많음. 또한 농촌 고령화에 따라 농업을 이어 받을 후계자가 없어 어쩔 수 없이 농업에 종사해야 하는 측면도 있음.
- (질의) 지역별로 복지에 대한 수요가 다른데 오사카에 가장 많은 자원이 투입되는 복지계층이나 유형은 어떤 것인지?
- (답변) 최근 30~40대 청년들이 계약직 등 비정규직으로 일하고 있어 청년들이 저소득층에 차지하는 비율이 점차 늘어나고 있음.
- (질의) 일자리 창출, 공공근로 등 일본 정부에서 주도하는 노인일자리 정책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 (답변) 국가에서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실시하고 있음.

- (질의) 기금에 분담금을 내는 시설이 정부지원을 받고 있는 시설인지? 그리고 1년에 어느 정도 거출되는지?
- (답변) 국가지원을 받는 단체에서 분담금을 거출해서 운영 중이며, 1년에 총 7,000~8,000만엔 정도 거출되고 있음.

#### □ 시사점

- (시대적 변화) 기존 행정부문의 역할만으로는 더 이상 사회복지 문제 해결이 쉽지 않고 복잡성이 높은 '난제의 시대' 대두
  - \* 고독사(고립사), 은둔(히키고모리), 학대·가정내 폭력, 자살, 생활 궁핍 등 복잡 다변한 복지 문제가 급격히 증가.
- (사회공헌사업 대상자 연령대 하락) 대상자의 연령층은 사업 개시 당초 60대 이상이 70%를 차지했지만, 리먼쇼크 즈음을 계기로 30~40대 세대가 빈곤층으로 급증, 기금 투입 증대
  - \* 이에 대해 일자리 창출과 본인 스스로 자조할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필요.
- (민간 부문 복지 기능 강화) 기존의 복지체제로는 보호할 수 없는 제도 사각지대에 있는 복지 수요자에 대해 사회복지 법인 전문성과 노하우를 살려 선제적으로 선별적인 복지사업을 통해 지역의 다양한 복지 과제에 적극적으로 대처

#### □ 방문 사진



<오사카부 사회복지협의회>

---

## 5. 오사카부립 대형 아동관

---

### □ 시설 개요

- 부지면적 : 98,268,90m<sup>2</sup>
- 건축면적 : 6,530,16m<sup>2</sup>
- 층 수 : 지상 5층, 지하 1층
- 총사업비 : 171억엔
- 공사기간 : 1996년 3월~1999년 5월

### □ 시설 특징 (아동 접근성을 높임)

- 경사, 단차가 없는 구조
- 보행 공간 및 놀이터 공간의 명확화
- 종합 안내 사인의 설치
- 누구나가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화장실 설계

### □ 아동관 설명

- 장난감, 전시, 이벤트, 워크숍 등, 여러가지 프로그램을 통해서 아이의 육성을 지원하는 사업 및 아이와 관계되는 어른을 대상으로 한 빅뱅 칼리지 사업을 실시.

### □ 실시 사업

#### 1. 놀이, 문화의 창조

- 박물관 사업=1950년대의 거리 수준/익스프롬
- 놀이 체험사업=아스트로 캠프/놀이도구의 탐
- 공방사업=스페이스 팩토리/스페이스키친
- 극장사업=어린이극장
- 옥외사업=모험놀이장/교류광장

#### 2. 놀이 문화진흥 지원

- 시대완구 활용사업
- 이동뮤지엄 사업

#### 3. 건강한 성장을 위한 인재 육성/빅뱅 칼리지 사업(인재양성)

## □ 주요 질의답변 내용

- (질의) 아동관 연간 이용객과 주 이용 고객은 어떻게 되는지?
- (답변) 연간 24만명이 이용하며, 평일에는 유치원 등을 대상으로 하는 체험교실 운영, 주말에는 가족단위로 많이 이용하고 있음.
- (질의) 아동관 운영 방법은 어떻게 하는지?
- (답변) 5년마다 민간 위탁으로 운영하며 일반적인 시설 유지관리는 자체적으로 하며, 비용이 많이 소요되는 부분은 시에서 직접 수리함. 운영 인력은 14명 정도이며, 노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 대부분 직원이 노인이며 밥값과 교통비만 지원받는 자원봉사 수준임.
- (질의) 아동관 입장료는 유료인지?
- (답변) 대형아동관 중 입장료가 유료인 곳은 여기 뿐이며, 설립 당시에는 무료로 운영되었으나, 경제 상황이 안좋아져서 현재 유료로 운영중임.

## □ 시사점

- 급격한 사회 변화와 가족 구조로 다양한 아동문제가 발생.
- 이에 대한 복지적 접근으로서 아동 개인에 초점을 둔 사후 치료적 복지대책이 아니라 가족기능을 강화하는 가족위주의 예방적 차원의 아동복지 시설이 필요하다고 봄.
- 인구 43만 도시의 구미시의 경우 과학관을 제외하곤 가족단위로 한 공간에서 가족(특히 아동)을 위한 체험과 공연, 놀이 등을 동시에 할 수 있는 공간이 거의 없음.
- 아동친화도시인 구미시도 일본의 사례를 참고해서 유형별 아동관을 권역별로 조성하는 방안 검토.

□ 방문 사진



< 오사카 부립 대형 아동관 방문 사진 >

---

## 6. 스기고헤이 농원

---

### □ 6차 산업 정의

- 도쿄대의 이마무라 나라오미 교수가 1995년 제창한 것으로, 생산(1차) 가공(2차)유통·관광(3차)을 융·복합( $1 \times 2 \times 3 = 6$ )한 농업을 말함.
- 2011년 6차산업화법이 시행되는 등 일본은 6차산업 선진국으로 자리매김
- 우리나라도 지난 정부의 국정 과제로 채택되어 2014년 5월 ‘농촌 융·복합 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국회를 통과했으며 2015년 6월 발효

### □ 일반현황

#### ○ 농원소개

- 체험농원과 그린푸드 레스토랑이 결합된 일본 6차 산업 성공모델이며 40년전부터 시작된 6차산업의 시초모델임.
- 농장주 노지마고헤이 사장은 수백 년 전부터 대대로 이어온 농사일을 물려받았음. 그는 고도의 경제성장기에 생산성만 추구하는 농업과는 다른 경영방식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였음. 단순한 식량생산 만을 추구하지 않고 농업을 통해 사람의 마음을 채우는 방식을 목표로 하였음
- 이곳에서 재배하여 생산된 농산물은 시장상품보다 비싼 가격에 판매

○ 대 표 : 노지마고헤이

○ 설립연도 : 1972년

○ 직 원 : 20여명

○ 작물재배 : 호두나무, 블루베리, 유자, 체리, 오크라, 연꽃, 벼, 고구마, 파리꼬추, 모로헤야 등

○ 재배면적 : 4ha

○ 농원체험 : 근교 도시인들에게 ‘도시농업도장’이라는 야채재배학교를 개설하여 한가족당 연6만엔 비용을 받고 농원 체험 실시.

## □ 주요 질의답변 내용

### <간략한 현황설명>

- ▷ 목표가치 : 배불리는 농업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을 행복하게 하는 농업, 즐겁고 행복한 가치를 중시함
- ▷ 친환경농법 : 당나귀 이용 (직원으로 생각)
  - 음식물 쓰레기 처리 → 분비물 → 퇴비 → 양질의 토지 → 양질의 농작물
- ▷ 농원은 여러 가지 다양한 과일, 채소를 소량으로 재배
- ▷ 체험농장
  - 한국의 주말농장처럼 임대하는 방식이 아니라 교육을 위한 공간임
  - 교육내용 : 1년 동안 30종류의 농작물 재배 방법을 교육
  - 교육비 : 1년에 6만엔
  - 교육생현황 : 과거에는 퇴직 후 농업을 배우려는 사람이 많았으나 최근에는 아이를 키우는 젊은 사람이 많음

- (질의) 농작이 너무 자연스럽고 어떻게 보면 관리가 안 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 농장의 가치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 (답변) 자연과 사람에 해가 가지 않는 농업을 추구하고 있으며 효율보다는 사람의 마음을 채우는 데 가치를 두고 있음.
  
- (질의) 지금의 농장으로 정착되기 전까지 힘든 부분은 없었는지?
- (답변) 50년 전 일본경제는 고도 성장기였으며 22세에서 시작한 농장은 25세까지 10배가량 성장하였고 지금까지 농장운영에 큰 어려움은 없었음.
  
- (질의) 다소 저효율이라고 볼수 있는 생산체제로 어떻게 수익을 창출하는지?
- (답변) 50년 전 농장을 시작할 때 굴, 감자, 밤 등을 재배하여 체험농장 및 농가 레스토랑을 운영하였는데 그 당시에는 식당이나 편의점, 도시락 문화가 없어 우리 농장에 많은 방문객들이

찾아왔으며, 주변에 이러한 시스템을 갖춘 농장이 없어 경쟁 없이 성장할 수 있었음. 또한 주변 농가나 공공기관에서 시찰을 많이 다녀가기도 하였음.

- (질의) 주말농장학교는 총 몇 개 운영하는지?
- (답변) 100개 정도 운영 중인데 60%는 가족단위로 참여하고 나머지 40%는 단체에서 참여하고 있음. 주말농장학교의 참여자는 채소농사를 지으면서 농업에 대한 즐거움을 느끼고자 하는 사람이 대부분임. 취미로 시작했다가 전문적으로 배우는 사람도 있음.
- (질의) 처음부터 유기농으로 시작했나?
- (답변) 가족같은 마음으로 손님들을 대하려 하다보니 건강한 음식을 대접하게 되었고 30년전부터 유기농법으로 농사를 지음.

## □ 시사점

- 지난 2015년 우리나라에 6차 산업법이 발효되며 본격적으로 6차산업 관련 사업이 추진되는 시점에서 일본의 6차산업 모델의 효시라고 할 수 있는 스기코 헤이 농원은 현대적인 시설에 다소 맞지 않지만 50년의 세월동안 사람들이 찾아오는 이유는 농업이 6차산업으로 활성화되려면 크기와 시설보다는 농업에 대한 리더와 구성원의 자세와 의지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줬음.
- 정부와 지자체가 귀농·귀촌과 6차산업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제도와 지원책을 시행하고 있지만, 결국 사업 추진 주체는 농업인이며 구미만의 특색과 강점을 드러낼 수 있는 농업인에 대한 선택과 집중을 통한 지원과 관리가 필요.

□ 방문 사진



< 스기코 헤이 농원 방문 사진 >

## 1. 재난방재 시스템 고도화

- 일본에서 방재는 모든 행정기관의 공통 업무이며 방재 담당 기관도 다양함. 아울러 고령화와 핵가족화, 도시화와 다문화 등 급격하고 복잡한 사회적 변화가 진행되고 이에 따라 재난 또한 태풍과 같은 자연재난 뿐만 아니라 불산 누출사고와 같이 사회 재난 또한 증가하고 있음.
- 지진의 경우 구미시에서는 지난 2017년에 제정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있지만, 민간건축물지진안전성 표시제 운영에 관한 조례를 차후에 제정하여 구미시가 방재 선진 도시로 나아갈 수 있도록 선제적인 조치가 필요함.
- 또한 일본의 자율방재단과 유사한 조직을 육성(소방, 안전 분야 퇴직공무원 활용 등)해서 재난에 활용하는 것도 한 방안임.
- 아울러 안전문화 확산과 교육을 위해 구미시에 재난 올인원 (all-in-one) 센터를 조성하여 각종 재난을 체험하고 재해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다양한 재난교육을 할수 있는 정책도 검토.
- 참고로 일본에서는 재난에 대한 예방과 대응, 복구의 3단계를 넘어 부흥\*의 인식을 도입해서 활용하고 있음.

\* 부흥 : 재해를 당한 후에 국민들이 어떻게 빨리 피해를 극복하고 재해를 당하기 전 보다 더 나은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개념임.

## 2. 지역 특색에 부합하는 상향식 도시재생사업 추진

- 침체된 원도심 부활과 상권 살리기를 위해 민간 차원의 획일적인 대규모 아파트 건립을 지양하고 지역민을 중심으로 마을의 스토리, 역사와 문화를 보존하면서 지역민과 상생할 수 있는 도시재생사업이 필요.
- 사업 초기부터 주민 참여를 통해 주민의, 주민에 의한, 주민을 위한 도시재생사업이 되어야 하며 행정기관에서는 전문적인 능력이 필요할 경우 지원해주는 역할이 요구됨.
- 이를 통해 사업추진부터 사후 관리까지 주민이 주체가 되고 그 지역의 특색이 담긴 도시재생사업이 나올 것으로 기대.
- 지역 문화재 등을 스토리텔링해서 관광자원으로 개발하여 관광코스로 만들어서 관광객 유입을 통한 상권 살리기 등 문화재생 정책도 필요할 것으로 봄.
- 또한 공단내 일부 유희부지를 활용하여 대한민국 수출을 선도한 구미 공단의 역사를 시민들이 알 수 있도록 공단 역사 박물관을 조성하는 것도 관광객 유입에 효과가 있을것으로 봄.

## 3. 6차 산업 활성화 등 지속가능한 농업 발전.

- 농업인구의 고령화 및 후계인력 감소에 대한 대책.
  - 농업관련 체험시설 확대 및 귀농인에 대한 교육 확대
  - 어린이에게 농업과 접촉할 수 있는 문화 조성
    - 테마파크, 농업관련 이모티콘, 농산물 재배 및 가공 체험 등
  - 고령 농업인에 대한 찾아가는 서비스 증대
    - 농촌 공동화에 따른 은행, 우체국, 마트 등의 서비스 시설 감소

- 생산자의 그룹화, 6차산업화 등과 관련된 과도기를 겪은 후 안정화
  - 시장가격 변동에 따른 출하처 변경 등에 의한 공동판매 조직 잡음 발생
  - 그룹화된 농업생산자의 경영능력에 따른 파산과 성공

○ 농업의 6차산업화 시행시 식품 전문 업체와의 협업 강화

- 전문업체의 가공시설, 위생관리, 유통망 활용, 농업인은 생산에 집중
  - 고령농가는 생산에 집중, 지역농협은 수거와 저장, 식품회사는 가공, 판매로 서로 상생하는 구조.

○ 농산물 직매장 확대 및 자국농산물 가격에 대한 사회적 이해

- 직매장 증가로 유통단계 축소를 통한 농가소득 증가
- 농가의 자율적 가격 결정과 모양과 크기에 당도 등에 대한 판매가(價) 반영
- 1인 가구 증가, 고령화, 높은 온습도에 따른 저장 기간 제한 등으로 소포장, 중소과(果) 판매 증가

- \* 일본의 경우 소비자들의 인식이 지산지소(지역에서 생산하는 농산물 지역에서 소비한다)라는 개념으로 소비성향이 갖춰져 있음.
- \* ‘보조금은 마약이다’이라는 말이 있듯이 철학이 없는 보조금은 1차산업인 농업의 근간을 흔들 수 있기에 6차 산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1차 산업에 대한 지속적인 유지와 관리가 되어야 함.
- \* 일본의 경우 보조금은 7:3(자부담)으로 지원.
- \* 스기코 헤이 농원의 경우 농업이 6차산업으로 활성화되려면 크기와 시설보다는 농업에 대한 리더와 구성원의 의지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줬음.
- \* 또한 1차 생산물(원물)을 사갈 수 없거나 필요 없는 소비자들도 있기에 원물뿐만이 아닌 가공품, 레스토랑, 공예품, 캐릭터장난감 등 구비.
- \* 정부와 지자체가 귀농·귀촌과 6차산업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제도와 지원책을 시행하고 있지만, 결국 이의 주체는 사람이고 그가 농업(의 가치)에 대해 어떤 생각과 철학을 갖고 임하느냐가 무엇보다 중요하며 이에 대해 선택과 집중을 통한 지원과 관리가 필요.

#### 4. 민간 사회복지협의회 기능 강화로 공공분야 복지 보완

- 일본의 민간 사회복지 주체인 사회복지협의회는 지역사회에서 민간의 자주적인 복지활동의 중추가 되며, 주민이 참가하는 복지활동을 추진하고, 보건·복지상의 제반문제를 지역사회의 계획적·협동적 노력에 의해 해결하려고 하는 공공성·공익성이 높은 민간비영리단체로서
- 또한 지역의 주민 조직과 공·사의 사회복지관계자 등에 의해 구성되며, 주민주체의 이념에 의거해 지역의 복지문제 해결에 관여하여 누구든지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지역복지의 실현을 추구하며, 주민의 복지활동 조직화, 사회복지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 등의 연락 조정 및 사업의 기획 실시 등을 하며,
- 시·구·정·촌(일본의 기초지방자치단체 이하 기초단체), 도·도·부·현·지정도시(광역지방자치단체 이하 광역단체) 전국을 연계하여 공공성과 자주성을 영위하는 민간 조직임임.
- 지역 복지가 복지문제의 고도화, 복잡화, 다양화, 전문화로 각종 서비스 활동의 다양화 및 주민의 참가를 중시하는 경향으로 치닫고 있어 사회복지에서 민간이 차지하는 비중 또한 증가할 것으로 판단.
- 현재 구미시 사회복지협의회는 주로 시설종사자의 교육훈련이나 연수, 행사 개최 등 제한되고 한정된 기능을 수행.
-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사회복지 수요에 맞춰 기존 공공부문의 한정된 인력으로 추진한 사회복지 서비스 기능을 비교검토해서 일부를 민간으로 이양하거나 위탁 방식으로 추진하여 법령상 공공부문에 등록되지 못한 사회복지 대상자를 추가 발굴하고

- 시급성이 요하는 대상자에 대해 긴급히 서비스를 추진하는 등 기존 공공부문의 복지 서비스 한계를 민간 부문에서 일부 대체하고 보완하는 방식으로 복지사각지대를 해소.

## 5. 아동과 가족에 대한 거점 복지시설 조성 검토

- 우리나라의 급격한 근대적 산업사회의 성립과정은 가족구조와 기능에 커다란 변동을 초래하였으며 다양한 아동문제가 발생.
- 아동인구의 감소와 함께 핵가족화, 여성의 취업증가, 이혼 및 한부모가족, 미혼모의 증가 등의 사회현상은 가족해체에 의한 아동의 유기, 아동학대 및 아동의 인권침해, 사생아의 증가등 심각한 문제들을 야기시켰음.
- 이에 대한 복지적 접근으로서 아동 개인에 초점을 둔 사후 치료적 복지대책이 아니라 가족기능을 강화하는 가족기반의 예방적 차원의 아동복지의 필요.
- 일본의 아동복지관은 그동안 아동복지의 핵심적 역할을 담당해 온 아동복지 수용시설에서의 변화\*와 밀접하며 아동복지관은 '아동과 가족이 생활하고 있는 지역사회 내에서 문제를 가진 아동과 그 가족에 개입하여 이를 치료할 뿐 만 아니라 일반 가정의 기능을 보충·지지하여 아동문제 및 사회문제 발생을 예방하며, 아동전용 놀이·문화공간을 제공함으로써 아동의 건전한 성장발달 및 복지증진을 도모하고 있음.

\*아동복지 수용시설 변화 : 요보호자에게 억압과 격리의 원칙으로 사회복지 시설 입소의 사회 방위적 단계→최저생활의 보장 수준으로 향상시키고 대규모 집단시설로부터 소숙사 형태(cottage system)로의 전환노력의 단계→보호의 연속체(care continuum) 안에서 시설은 하나의 선택자료로서 작용하는 사회복지적 단계

- 현재 일본의 아동관은 다양한 형태와 규모가 존재하고 있음.
  - 소형 아동관 : 소지역을 대상으로 아동에게 건전놀이의 제공을 건강을 증진하고 정서를 풍부하게 하며 어머니클럽,어린이회등의 지역조직 활동을 육성하는 등 건전육성에 관한 총합적인 기능
  - 아동 센터 : 소형아동관의 기능에 더해 운동을 통해 체력을 증진하는 특별지도 기능을 가진 기관
  - 대형 아동관
    - A형 : 아동기능 센터에 추가해서 지역아동관의 지도 및 연락조정 등의 역할을 수행하는 중추적 기능
    - B형 : 소형아동관의 기능에 더해 풍부한 자연속에서 아동을 숙박시켜 야외활동을 행할 수 있는 기능
    - C형 : 넓은 지역을 대상으로 소형아동관의 기능을 더해 예술, 극장, 화랑, 옥내수영장, 컴퓨터 플레이룸, 역사,과학 전시실, 숙박연구실, 아동유원 등이 부설로 설치되어 다양한 아동의 필요에 대응할 수 있는 체제의 기능(오사카,동경)
  
- 아동친화도시인 구미시도 일본의 사례를 참고해서 아동 복지 시설의 시대적 변화를 고려해서 인구 多少, 읍면동에 따라 수요를 조사, 파악하여 국비를 확보해서 유형별 아동관을 조성하는 방안도 검토해서 향후 아동과 가족에 대한 거점 복지시설로 활용.

## 우리의 안전교육과 본소방재관

구미시의회 의원 이지연

2018. 11. 18일부터 5일간의 연수의 목적은 구미시의 정책방향에 맞춰 우수사례를 보유한 일본의 시설 및 운영을 견학 후 벤치마킹 및 시사점을 도출하기 위해서이다.

구미 불산사고와 세월호, 지진을 경험하면서 가장 큰 충격은 집과 실내가 안전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이었다. 하루의 대부분을 실내에서 보내는 현대인들에게 갑작스런 재난재해가 닥친다면 과연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대처할 준비가 되어있을까? 아동과 노인을 비롯한 사회적 약자와 청소년,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구미시가 구현해야 하는 사항들은 어떤 것들이 있나?

여러 의문들을 품은 채, <생활안전>,<교통안전>,<재해안전>으로 분류되는 일본의 안전교육 중 가장 광범위하고 복합적인 위협에 대비한 <재해안전>에 대해 체험과 교육을 맡고있는 본소 방재관을 방문하였다.

소방서와 같이 입주되어 있는 평범해 보이는 건물을 들어가니 방문단 체별로 직원이 전담하여 전체 체험과 질의 응답을 맡아주었다. 다만, 여러 체험시설과 방문객으로 소란스러운데다, 관광객의 통역을 주로 하셨을 통역사께서 우리가 하는 행정적인 질문을 전달하는 과정이 미숙하고 답답했다. 추후 외국 공무연수에서 통역사의 경력을 꼭 확인해야겠다고 생각했다.

우선, 간단한 인사와 주의사항을 일러준 후, 일행들을 조로 나누어 1층에서 지진체험과 화재시 연기체험과 탈출훈련,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진을 테마로 한 영화를 보았다. 가능하다면 모든 시민들이 자연재해를 훈련하는 과정에서 실제로 접해보는 것이 꼭 필요하겠다는 생각을 했다.

경험, 학습하지 못하고 짜여진 대책은 재해만큼 위험하다.

재해대책은 보호자와 함께 있을 경우와 따로 떨어져 있을 경우, 낮과 밤의 경우, 재해의 종류와 강도에 따른 분류와 함께 복합적인 재해발생의 경우가 세심하게 고려되어야 한다.

현재 지진발생시 집밖으로 나가라는 안내가 있으나, 내진설계가 된 건물인 경우는 실내에 머무르는 것이 더 안전할 수도 있다. 그래서 건물입구에 건물의 내진설계에 대한 안내와 홍보가 필요하다.

더구나, 아파트와 건물에서 외벽 샷시와 함께 구성된 유리는 경우에 따라서는 재해보다 먼저 우리를 위태롭게 할 수 있다. 특히 천장의 전등과 집집마다 배치된 책장의 책들과 액자등도 2차 피해를 유발하게 한다. 현재의 획일적인 대책에 대해 <검토>가 필요하다. 가정마다 여러 재해에 대비한 시각으로 내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유사시 바로 들고 나갈 수 있는 비상 Kit를 비상식량과 함께 미리 준비해서 입구에 배치하는 것도 필요할 것이다. 특별히 방재관 내의 엘리베이터에 비치된 응급약품 Kit가 인상적이었다.

우리는 세월호를 겪으면서 재난관리자의 지시에 대해 안타까워했다.

가능하다면 학교,회사,가정 등에서 여러 재해와 대비방법에 대한 토의와 토론이 필요하다. Top-Down방식의 학습보다는 구성원 모두의 경험과 의견을 나누면서 자신의 신속한 판단으로 자신의 생명을 지킬 수 있는 생존능력을 갖추도록 지원해야 한다.

그리고 재해를 피하는 것을 넘어서 타인의 생명을 구하는 활동에 대해서도 이야기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본소방재관에서 연기체험 당시 직원은 우리에게 나온 곳을 돌아가지 말라고 반복해서 말했다. 신속한 판단과 평소 습득한 생존기술로 혼자인 경우에도 스스로 살아남을 수 있도록 재해대책은 변화되어야 한다.

재해에 대비한 안전교육이 대피에 머물지 않고 행정기관과 지역주민 모두가 참여하는 유기적인 대응의 단초가 되길 바란다.

특히 첨단 IT산업도시인 구미가 차별화된 디지털 재난시뮬레이션 체험관과 교육관을 운영한다면, 다양한 상황을 효율적으로 경험할 수 있어 경쟁력을 가질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을 내어본다.

방재교육의 필요성과 첫 국외연수의 아쉬웠던 점을 소회한다.

구미시의회 의원 이선우

이번 일본 연수는 도시재생과 사회복지 등을 중점으로 현장 방문을 목적으로 간담회와 자료 분석을 충분히 하고 수정을 거쳐 준비를 하였다.

가장 인상적인 2곳은 1일차의 동경 소방청 안전방재관과 4일차의 오사카 부립 대형 아동관 방문이었다.

캐나다에서 살 때, 어학원에서 가장 두려운 것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한 일본 친구가 지진이 가장 두렵다고 하는 것에 놀랐던 경험에 있다. 예상치 못한 단어를 만났고 지진의 공포와 그 피해가 무엇인지 10년이 지났지만 지금도 늘 궁금했다. 그러다 여러 번 지진을 경험하고 나서 여럿푼이라도 그 공포가 느껴져 아이들과 수업을 하던 시간에도 지진이 나면 건물 밖으로 뛰쳐나오기 시작했다. 우리나라도 이제 지진의 위험에서 안전한 지역이 더 이상 아니고, 또한 실제 피해로 아직도 포항은 복구가 마무리되지 않았다.

그래서 방재관의 방문은 기대감을 주었는지도 모른다. 시간 관계상 지진과 화재 체험을 할 수 있었지만 몸으로 느껴지며 실제로 익힌 대응 방법은 꽤 또렷이 지금도 남아있다. 실제 일본에서 발생한 지진의 다양한 형태와 강도를 체험하고 무조건 밖으로 나가라고 익힌 대응법과는 달리, 안전을 위해 가장 먼저 가스 차단, 그 이후 탁자 밑으로 쿠션을 들고 엎드리는 동안 안의 장기에까지 느껴지던 흔들림은 공포가 맞았다.

일본은 내진 설계부터 가구 손잡이까지 모두 지진의 상황에 맞추었기에 어쩌면 우리는 밖으로 뛰쳐나가는 것이 더 안전할지도 모르겠지만, 안전에 대해 과하다 싶은 교육은 실제로 자기 보호를 스스로 할 수 있게 해주는 당연한 학습의 과정이라고 생각한다.

화재탈출 또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공간의 화재상황에서의 리더의 역할, 그리고 바닥의 비상구, 몸을 낮추니 연기에서 조금은 덜 노출되는 상황들 또한 공포와 함께 몸으로 익히는 좋은 교육이었기에 구미에도 생존 수영처럼 교과 과정에 넣어서 진행할 수 있는 방안들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내보고 싶다.

그리고 오사카 부립 대형 아동관 방문은 상당히 아쉬운 방문기관이었다. 의원들이 간담회 당시 요청한 것은 우리나라의 복지시스템은 대부분 일본의 시스템에서 가져온것이니 민간 사회보장협의회 방문보다는 아동들이나 보호 받아야할 분들이 직접 생활하는 시설 방문을 송용자 의원이 요청하였다.

그러나 우리가 방문한 오사카 부립 대형 아동관은 아동들이 과학적 놀이를 체험하고, 시설을 이용해서 오락을 즐기는 정도의 오사카부에서 운영하는 시설이었다. 체험하는 기구들 대부분 한국의 아동들이 즐기는 시설에서 본 것이었고, 목적성과 전혀 맞지 않는 방문이 너무 아쉬웠다.

다만 10년 이상 된 시설의 운영이 여전히 잘되고 자원봉사자들의 활용, 시설의 안전 등은 인상적이었다.

빡빡한 일정 속에서 방문한 기관 중 가장 만족하는 곳과 그렇지 못한 곳, 두 곳을 비교하면서 많은 준비를 거쳤지만 구미시의 상황과 정확한 목적을 인지하지 못한 연수기관과 연수 자체의 운영에서도 개선해야 할 점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는 시간이었다.